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거를 타선이 없었다

KIA타이거즈 2024 정규시즌 결산

<2> 화끈했던 불방망이

팀 타율 1위... 리그 유일 3할대 안타·타점·득점도 압도적 선두 희생 대신 직접 해결 능력 갖춰



올해 '초보 사령탑' 이범호 감독 체제로 2위 팀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며 정규시즌

을 제패한 KIA타이거즈의 원동력은 화끈한 타선이었다.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선발 라인업은 물론 대타와 대주자, 대수비 등 교체 자원들도 해결 능력을 갖추며 상대를 압도했다.

KIA는 올 시즌 팀 타율과 안타, 타점, 득점에서 모두 선두에 올랐다. 2루타는 2위, 3루타와 홈런은 3위로 장타 기록 역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고 희생 플라이는 5위로 중위권, 희생 번트는 7위로 하위권에 있었다.

야수진의 기록을 종합하면 그만큼 화끈한 공격력을 펼쳤다는 의미다. 투수로서는 상위 타순부터 하위 타순까지 모든 타자들이 해결 능력을 갖췄으니 그만큼 상대하기에 까다로웠을 터.

KIA는 팀 타율이 3할1리로 단독 선두



KIA타이거즈 나성범(가운데)이 지난 7월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맞대결에서 만루홈런을 터트린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에 올랐다. KBO 리그에는 최근 다섯 시즌 간 3할대 타율을 기록한 팀이 없었다. 2018시즌 두산베어스(3할9리) 이후 6년 만으로, 올 시즌 팀 타율 2위 롯데자이언츠와는 1푼 6리, 최하위 키움히어로즈와는 3푼7리 차이가 났다.

특히 KIA는 팀 타율을 정규시즌 6위에

그치며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던 지난해 2할7푼6리보다 2푼5리를 끌어올렸다. 여섯 번째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일궈냈던 2017시즌 3할2푼과 아주 흡사한 타율의 흐름이었다.

팀 타율이 높았던 만큼 안타와 타점, 득점에서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KIA

는 144경기에서 1542안타와 812타점, 858득점을 생산해 평균 수치로는 10.7안타, 5.6타점, 6.0득점에 이른다. 안타에서는 롯데(1454안타)와 88개, 타점과 득점에서는 LG트윈스(765타점·808득점)와 각각 47점과 50점으로 격차를 벌렸다.

팀 안타 1500개, 타점 800점 고지를 들

파한 팀 역시 KIA가 유일하다. KIA는 2018시즌 두산(1601안타) 이후 6년 만에 1500안타 고지에 올랐고, 2020시즌 NC다이노스(845타점) 이후 4년 만에 800타점을 이뤘다.

또 팀 2루타가 266개로 롯데(285개)에 이어 2위, 3루타가 28개로 롯데(41개)와 LG(29개)에 이어 3위, 홈런이 163개로 삼성라이온즈(185개)와 NC(172개)에 이어 3위에 오르는 등 장타 기록도 모두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반면 희생 플라이는 53개로 다섯 번째로 적었고, 희생 번트는 45개로 일곱 번째로 적었다. 병살타가 119개로 가장 많았음에도 타자들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갖췄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이같이 타선이 폭발력을 과시한 가운데 이범호 감독의 작전 야구도 힘을 더했다. KIA 선수단은 삼진 915개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출루율은 3할6푼9리로 가장 높았다. 득점권 타율은 3할8리에 이르고, 대타 타율도 3할4푼을 찍었다.

이 결과물이 두 자릿수 득점이다. KIA는 올해 정규시즌 144경기 중 24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생산했다. 16.7%에 이르는 비율이고, 두 자릿수 득점을 생산했을 때 23승 1무로 승률 100%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내가 전국 최고... 광주·전남 체육 위상 드높일 것”

오늘 경남서 제105회 전국체전 개막 전용대·남수현 등 지역 스타 총출동 광주 49개 종목 1424명... 10위 목표 전남 49개 종목 1748명... 12위 예상



전국 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1일 개최식을 갖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7일까지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김해종합운동장 등 경남도 일원 7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에서 3만 1205명(선수 2만 1043명·임원 1만 016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9개 경기 종목(정식 47, 시범 2)에서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전국체전을 알리는 개최식은 '미래로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주제로 11일 오후 6시10분부터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돼 경남도청을 출발 후 총 795km를 달려 온 성화가 접화된다. 5만 년 전 경남에 떨어진 운석(불꽃)과 미래 동력(우주산업)의 발화, 역사를 관통하는 경남의 이야기를 대형 LED 커튼, 영상 맵핑이 조화를 이뤄 김해종합운동장 전체 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연출을 통해 대회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릴 예정이다.

광주시선수단은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검도 등 49개 종목에 1424명(선수 1081·임원 343명)이 참가한다. 전력 분석 결과 광주선수단은 금 31·은 47·동 76개 등 총 154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사상 첫 7관왕을 달성한 기계체조 문건영(광주체고 3)이 이번 체전에서 4관왕 이상을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궁의 오예진(광주 여대 3)도 4관왕이 예상되고 역도 81kg의 손현호(국군체육부대)와 육상 고승환(광주시청)은 각각 3관왕이 기대된다. 조정의 김승현(광주체고 3)은 2관왕을 바라본다.

육상 100m허들의 정혜림(광주시청)은 9연패를, 육상 400m 계주의 광주시청팀(김국영·강의빈·고승환·김태호)은 4연패에 도전한다. 육상 원반던지기의 김지인(한체대 4)과 복싱 L웰터급의 한영훈(광주 동구청), 에어로빅합합 3인조의 박민서·선정원(이상 광주체고)은 각각 3연패를 노린다. 사격 센터화이어권총의 장대규(광주시체육회)와 조정 더블스컬의 김승현·김정민(이상 광주체고 3)은 각각 2연패를 목표로 한다.

전남에서는 49개 종목에 1748명(선수 1130명·임원 618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12위를 목표로 한다. 전남선수단은 금 46·은 36·동 103개 등 총 185개 메달 획득을

예상하고 있다.

전남은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양궁 남수현(순천시청)과 사격 조영재, 육상 김장우, 근대5종 서창완(이상 국군체육부대), 복싱 임애지, 배드민턴 정나은(이상 화순군청),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등은 금메달을 노린다.

육상 이은빈(전남체고 3)과 양궁 조한이(순천여고 2)는 다관왕이 예상된다. 육상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수시청)가 10연패를, 육상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우수 산타 -56kg 윤운진(전남도청)이 6연패를, 우수 산타 -60kg 김민수(전남도청)·양궁 여일부 단체전의 순천시청·사격 공기권총 단체전의 전남선발팀이 3연패에 각각 도전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야구 소프트볼·럭비·배드민턴·태권도 등 사전 경기에서 광주는 금 2개(태권도 남대부 -58kg 조선대 김해규·남U18 -87kg 문성고 이지후), 은 3개(태권도 2·배드민턴 1개), 동 9개(태권도 8·배드민턴 1개)를 획득했다. 전남은 은 2개(태권도 1·배드민턴 1개), 동 9개(태권도 8·배드민턴 1개)를 따냈다.

최동환 기자



광주 문성고 이지후가 1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종목인 태권도 남자18세이하부 겨루기 -8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 직원이 최근 제104회 전국체전 출전 선수에게 회복 컨디셔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 제105회 전국체전 선수단 현장 밀착지원

박사급 연구원 등 4개팀 19명 파견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이 제105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밀착지원에 나선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 및 처치 등을 위해 박사급 연구

원과 컨디셔닝센터 전문인력 및 송원대 협업팀으로 구성된 4개 팀, 19명을 파견한다.

파견 인력들은 △부상 예방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시합 전·후 회복 컨디셔닝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지원 △스포츠심리 및 스포츠 영양 지원 △영상 장비를 활용한 경기력 분석 등을 통한 전술 및 전략 분석 △도핑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도 이뤄진다.

전남주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광주 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포츠과학 현장 밀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스포츠과학 혁신 정책들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